

제 목	국 문	부산지역 일부병원 근무자들의 작업관련 유해인자에 관한 조사		
	영 문	A study on work-related risk factors of the employee in the hospital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 영 욱, 조 봉 수, 고 광 욱, 김 영 실, 강 수 용, 조 병 만, 이 수 일, 김 돈 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Yeung Wook Kim, Bong Soo Cho, Gwang Wook Gho, Young Sil Kim, Soo Yong Kang, Byung Mann Cho, Su Ill Lee, Don Kyoum Kim <i>College of Medicien, Pusan National University</i>		
분 야	환경 및 산업보건	발 표 자	김 영 욱(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0 월			
<p>1. 연구 목적</p> <p>전반적으로 사회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인 산업장과 마찬가지로 병원 역시 병원근무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유해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병원근무환경 유해요소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근무환경의 유해요소를 밝히고 유해부서를 확인해 향후 병원의 전반적인 작업환경 평가시의 항목선정과 병원근무자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2. 연구 방법</p> <p>부산지역의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 각각 1개를 선정해 이들 병원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시행.</p>				

### 3. 연구결과

- 1) 전체 조사대상자 830명 중 517(63.1%)명이 병원근무환경이 건강상 유해요소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499명(60.5%)이 근무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
- 2) 병원근무자들이 많이 폭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총49개 항목의 유해인자에 대한 폭로여부를 조사한 결과 먼지(69.8%), 소음(52.3%), 알콜류(41.3%) 등 11개 항목에서 전체 병원근무자의 20% 이상이, 22개 항목에서 전체 병원근무자의 10% 이상이 폭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별 폭로항목을 살펴보면 병리기사의 경우 산, 알칼리 등 13개 항목에서 폭로순위가 1위로 나타나 가장 많은 유해환경에 폭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간호사(6개항목), 약사(5개항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총 조사대상자의 53%가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무부서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7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 간호사의 순이었다. 이를 항목별, 근무부서별로 살펴보면 호흡기장애, 안구 및 점막자극 증상, 찰과상, 열상 및 피로의 경우 약사가 가장 많이 호소했으며 요통, 발진 및 피부자극증상, 췌염, 염좌의 경우 간호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력감,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비특이적 증상은 병리기사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병원근무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2시간이었고 이를 근무부서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3.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과 의사(11.4시간), 기타 일용직(9.5시간)의 순이었다. 전공의의 경우 하루 평균근무시간이 14.3시간이었으며 외과계열의 전공의인 경우 평균근무시간이 15.4시간 이었고 35%에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전체 응답자의 53.4%가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85%가 야간당직근무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야간당직횟수는 5.1회 였으며 의사가 평균 9.8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간호사(4.4회)의 순이었다. 전공의의 경우 한달 평균 11.7회, 외과계열 전공의의 경우 한달 평균 14.3회의 야간당직근무를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고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근무자들이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병원의 작업환경측정이나 이러한 유해항목과 병원근무자의 건강지표간의 관계, 더 나아가 병원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적용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